

최태원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의 지속성장 이끌 것”

(SK그룹 회장)

‘베이징 포럼 2018’ 개막 연설

경영환경에 맞춰 근본적 변화 추구
고객 충성도 강화·신규 고객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그룹의 신경영전략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베이징 포럼 2018’ 개막 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오늘날 경영환경은 기업들이 경제적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시민’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과 같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SK는 이 같은 경영환경에 맞춰 기업의 목적함수에 사회적가치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국내·외 포럼 등 기회가 때마다 기업의 경제적가치 외에 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조어대)에서 열린 ‘베이징포럼 2018’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SK그룹

중, 시민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가치도 창출해야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더블보틀라인(DBL) 경영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축으로 한 신경영전략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DBL 경영은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함께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SK 관계사와 구성원들이 더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SK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와 공유해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도 밝혔다.

최 회장은 “SK가 보유한 전국 3600개 주유소 부지를 공유인프라로 개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유소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SK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자리 등 사회적가치를 많이 만들어 낸 사회적 기업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를 받은 사회적기업이 100여개에 달해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자립기반도 보다 탄실해 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가치 추구는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을 창출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사회적가치 추구는 또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5회째인 베이징포럼은 SK가 설립한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베이징대와 함께 주최하는 국제학술포럼이다.

올해 주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지난 120년간 대학과 문명’으로, 베이징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세계대학총장 포럼과 함께 열렸다.

포럼에는 순쑤란 국무원 부총리와 천바오성 교육부장(장관) 등 중국 고위인사를 비롯해 피터 셀로베이 미국 예일대 총장, 고노카미 마코토 일본 도쿄대 총장, 린젠화 중국 베이징대 총장, 로버트 짐머 미국 시카고대 총장, 진 블록 미 UCLA 총장, 응웬 킴 손 베트남하노이국립대학 총장, 브루스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 제시카로슨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 글로벌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 신성철 KAIST 총장, 정규상 성균관대 총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이영무 한양대 총장, 전유택 평양과기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생채기만 남은 ‘실버택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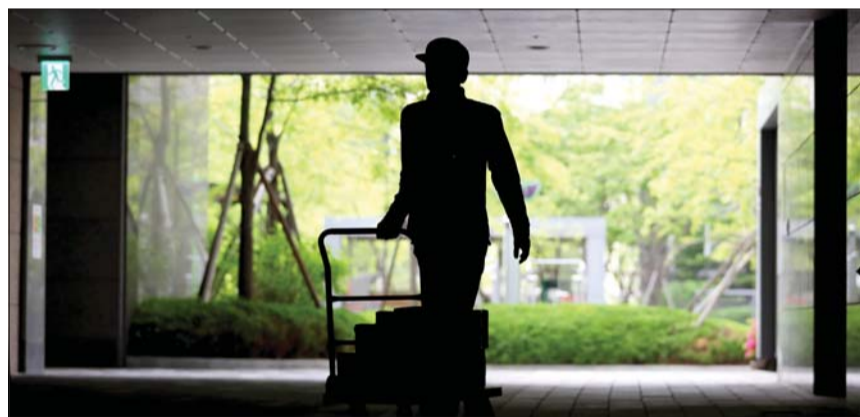
국토부, 중재안으로 실버택배 제한
“사적 서비스에 혈세 투입이유 없어”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중재안 철회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입주민과 택배사간 배송 분쟁으로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모델(CSV)인 ‘실버택배’가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실버택배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등에 마련된 물류거점까지 택배를 나르면 노인들이 최종 수령자에게 배송하는 형식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인 모델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런데 아파트 지상에서 사고가 발생,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면서 택배사와 분쟁이 벌어졌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중재에 나서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해당 단지에 세금이 들어가는 실버택배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분이 커졌고 결국 국토부는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사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실버택배’가 국민 여론이 격화되며 결국 백지화가 됐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를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미봉책으로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꺼내든 국토부의 미숙한 업무 처리에 대한 질타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착한 모델’인 실버택배만 상처를 입은 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하면 정부 부처 장관 등이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청원자는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 마이클 포터 등 글로벌 리더들에게 실버택배를 소개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실버택배는 택배산업의 비즈니스 관점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결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표적 CSV 경영 사례”라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명’을 주제로 한 리포트에서 실버택배 모델을 한국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실버택배 요원들도 만족감이 상당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뒤 실버택배를 하고 있는 손모씨는 “물건을 기다리다(택배를)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면서 “수입이 생길 것도 좋지만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 동료와 함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인 실버택배가 이번 다산신도시 이슈로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소외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또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높이 상향 등 공공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주항공, 34호기 도입... 연내 39대 운용

제주항공이 지난 6일 34호기를 도입했다. 7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31대를 보유했던 제주항공은 올 들어 벌써 3대를 추가 도입하며, 연내 39대를 운용한다는 목표를 손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9대를 신규 도입하고 사용계약이 끝나는 1대를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미국 보잉사의 B737-800과 동일한 기종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추가도입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 등 노선 확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무안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일본 오사카, 베트남다낭, 태국 방콕 등 3개 노선에 신규 취항했으며, 괌과 다낭 등 기존



제주항공 항공기.

인기노선에 대한 증편과 잇단 신규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항공기 추가도입과 노선 확대 및 증편 등을 통해 국제선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8개 국제항공사가 가운데 제주항공의 국제선 수송분담률은 2016년말 8.7%에서 2017년말 11.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11.3%까지 높아졌다. /양성준 기자 ysv@

LG전자, 최적의 사운드 구현한 ‘사운드바’

메리디안오디오와 공동개발 기술 적용

LG전자가 2018년형 ‘사운드바’를 출시하며 국내 오디오 시장을 공략한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SK10Y에 영국 명품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오디오와 공동 개발한 고품질 음향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의 독자적인 오디오 기술에 메리디안의 뛰어난 신호 처리 기술과 고도화된 튜닝 기술을 더해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했다.

SK10Y와 SK8Y는 입체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적용돼 마치 영화관처럼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돌비 애트모스는 화면에 나오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사용



2018년형 ‘LG 사운드바’. /LG전자

자의 앞이나 뒤,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머리위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소리가 시청자의 머리 위쪽에서 들리도록 해줘 더욱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공간감을 제공한다.

SK10Y는 5.1.2 채널 550와트(W)의 강력한 출력을 갖췄다. 5.1.2 채널은 전방의 좌·우·가운데와 후방의 좌·우 5개 채널,

서브 우퍼 1개 채널, 업파이어링 스피커(up-firing) 2개 채널이란 의미로 돌비 애트모스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특히 전장 방향으로 소리를 내는 업파이어링 스피커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한다. SK8Y와 SK5Y는 2.1 채널 360W의 출력을 갖췄다.

2018년형 사운드바는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모델명: SPK8S)’를 추가로 구매해 연결하면 손쉽게 다채널의 홈시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는 2채널의 140와트(W)의 출력을 갖췄다. 사운드바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깔끔한 설치가 가능하다.

LG전자는 SK10Y와 SK5Y를 LG베스트샵에서, SK8Y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각 판매한다. 5월 말까지 사운드바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25만원 상당의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